

기아, 1분기 매출 29조5천억원 '역대 최대'

영업이익 2조2천억·당기순이익 1조8천억
판매 불구 고수익 차종 중심 믹스 개선 성장
친환경 HEV 판매 32.1%·EV 54.1% ↑

기아차가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역대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기아차는 최근 2026년 1분기(1-3월) 실적 발표에서, 주주 및 투자자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아는 ▲판매대수(도매 기준) 77만9천741대 ▲매출액 29조5천19억원 ▲영업이익 2조2천51억원 ▲세전이익(경상이익) 2조6천352억원 ▲당기순이익 1조8천302억원 등 지난 1분기 경영실적(IFRS 연결기준)을 공시했다.

2025년 1분기와 비교해 판매대수와 매출이 각각 0.9%, 5.3% 증가했다. 판매는 역대 1분기 기준 최대를, 매출은 전체 분기 기준 최대를 각각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6.7% 감소

했다. 기아 관계자는 "올해 1분기 미국의 수입산 완성차에 대한 관세 영향이 온전히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북미·유럽 시장 내 경쟁 심화에 따른 인센티브 증가, 기말 환율 급등에 따른 판매보충금 당부채 증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그럼에도 고수익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과 평균판매가격(ASP) 상승을 통해 최대 매출 달성 등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2026년 1분기(1-3월)실적
기아는 지난 1분기 국내 14만1천513대, 해외 63만8천228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한 77만9천741대(도매 기준)를 판매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세제 전기차 보조금 집행에 따라 EV3, EV5, PV5 등 전기차 중심으로 판매가 늘며 전년 동기 대비 판매가 5.2% 성장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이란 갈등 관련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현지 공급 차질로 아중동 권역 판매가 줄어들었으나, 타 지역으로의 적극

적인 판매 전환, 신형 텔루라이드 및 스포티지 등 북미 하이브리드 모델 공급 확대, 서유럽 내 E V2, EV3, EV4, EV5, PV5 등 전기차 중심 판매 추진 등으로 같은 기간 해외 전체 판매는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했다.

현지 소매 판매의 경우 지난 1분기 글로벌 산업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한 상황에서, 기아는 아중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성장을 이뤄내며 현지 판매를 3.7% 늘렸다. 이 결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소매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4.1%를 기록했다. 기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4%를 상회한 것은 이번 분기가 처음이다.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글로벌 판매 증가와 더불어 고부가가치 차량 중심의 믹스 개선, 우호적인 환율 효과에 따른 평균판매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기보다 5.3% 증가한 29조5천19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6.7% 감소한 2조2천51억원, 영업이익률은 3.2%포인트 하락한 7.5%를 나타냈다. 이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증가(1분기 관세 영향 7천500억원) ▲북미 및 유럽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인센티브 증가 ▲1분기 말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화 판매 보충충당부채 증가 등 외부 변수에 따른 비용이 집중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2026년 1분기(1-3월)친환경차 판매
1분기 친환경차 판매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3.1% 증가한 23만2천대로 집계됐다. 유형 별로 하이브리드(HEV)가 같은 기간 32.1% 증가한 13만8천대, 전기차(EV)는 54.1% 늘어난 8만6천대가 판매됐다.

기아는 미국 내 하이브리드, 유럽 내 전기차 중심의 강한 수요 등 각 시장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파워트레인(PT) 대응 전략을 앞세워 친환경차 판매 성장을 달성했다.

지난 1분기 전체 판매대수 가운데 친환경차 비중은 29.7%로 전년 동기(23.1%)보다 6.6%포인트 확대됐다. 주요 시장 별 친환경차 비중은 ▲국내 59.3%(전년 동기 대비 16.6%포인트 상승) ▲미국 23.0%(4.6%포인트 상승) ▲서유럽 52.4%(8.5%포인트 상승) 등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망 및 계획
기아는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주요 시장 내 경쟁 심화, 대외 여건 변화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기아는 제품 믹스 및 ASP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수익성 방어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국 시장에서는 EV4, EV5, PV5 판매 확대 및 셀토스 하이브리드 출시 등 친환경차 중심의 판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시장에서는 고수익 차종인 텔루라이드 라인업을 강화해 시장 지배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관세, 보조금, 환경규제 등 현지 정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유럽 시장에서는 EV2, EV3, EV4, EV5로 이어지는 볼륨 EV 풀 라인업 구축 효과를 바탕으로 현지 전기차 시장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차량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과 다각도의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현대차 '아이오닉 V' 中서 세계 최초 공개

'2026 베이징 모터쇼' 참가
첫번째 중국 전략형 모델

현대자동차가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과 현지 전략형 모델을 앞세워 중국 시장에서의 전통화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현대차는 지난 27일 중국국제전람중심 순의관에서 열린 '2026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서 '아이오닉 V(IONIQ V, 아이오닉 브이)'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이오닉 V는 지난 10일 공개된 콘셉트카 '비너스 콘셉트'의 양산형 모델로, 중국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상품성을 갖춘 아이오닉 브랜드의 첫번째 중국 전략형 모델이다.

아이오닉 V는 현대차의 전통화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급스럽고 정숙한 주행 감성과 우수한 상품성을 갖췄으며, 현지 업체와의 기술 협업을 통해 현지에 최적화된 플랫폼과 배터리가 적용됐다.

아이오닉 V는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 '디 오리진'에 따라 '최고의 첫인상'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뒀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V의 전면부에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라인이 돋보이는 후드 디자인을 적용하고, 차량의 좌우 끝에 날카로운 형상의 엣지라



현대차는 지난 24일 중국국제전람중심 순의관에서 열린 '2026 베이징 국제 모터쇼(Auto China 2026)'에서 '아이오닉 V(IONIQ V, 아이오닉 브이)'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사진은 아이오닉 V.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이팅을 배치해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는 물론 차체가 더욱 넓어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구현했다.

아이오닉 V의 실내는 넉넉한 공간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아이오닉 V는 전장 4,900mm, 전폭 1,890mm, 전고 1,470mm, 축간거리 2,900mm의 제원을 갖췄으며, 1열 1,078mm, 2열 1,019mm의 레그룸과 1열 1,502mm, 2열 1,473mm의 숄더룸을 확보해 동급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과 거주성을 구현했다.

이와 함께 ▲호라이즌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퀵 스탭드래곤 825 집셋 ▲27인치 4K 대형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사양이 대거 탑재돼 한층 편리하고 쾌적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대형 디스플레이 하단에는 터치식 물리 버튼을 장착할 수 있어 고객의 니즈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아이오닉 V는 지금까지 축적한 현대차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수한 주행 성능도 확보했다. /임채만 기자

캐스퍼 일렉트릭, 獨 아우토빌트 비교 평가 '1위'

현대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현지명 인스터·사진)'이 독일의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빌트(Auto Bild)'가 최근 실시한 소형 전기차 비교 평가에서 전 항목 1위를 기록하며 종합 우승을 거뒀다.

이번 평가는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을 비롯한 시트로엥 'e-C3', BYD '돌핀 서프' 등 유럽 시장의 주요 소형 전기차 3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바디 ▲편의성 ▲파워트레인 ▲주행 성능 ▲카넥티비티 ▲친환경성 ▲경제성 등 7개 항목, 총 800점 만점의 체계적인 평가 기준이 적용됐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7개 전 항목에서 1위를 기록하고 총점 558점을 획득하며, 2위 돌핀 서프(503점)와 3위 e-C3(501점)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 아우토빌트는 파워트레인 항목에서 캐스퍼 일렉트릭의 탁월한 전력 소비 효율을 핵심 경쟁력으로 꼽았다.

아우토빌트의 실주행 테스트에서도 6.71km/kWh의 실측 평균 전비를 기록해 e-C3(5.49km/kWh)와 돌핀 서프(5.10km/kWh) 대비 약 20~30% 이상 높은 효율을 보였으며, 해당 실측 소비전력을 기준으로 환산한 실주행 거리 역시 308km로 e-C3(241km)와 돌핀 서프(253km)를 크게 앞질렀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효율적인 공간 활용성에서도 차별화된 강점을 보였다. 특히 바디 항목 내 다용도성 평가에서 8점을



기록해 두 경쟁 차종(각각 2점)을 큰 격차로 앞섰다.

'2열 슬라이딩 시트'와 '조수석 완전 폴딩 기능'을 통해 탑승과 적재 상황에 따라 실내 공간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또한 100km/h에서 정지까지의 제동 거리는 35.8m로 경쟁 모델 대비 최대 3m가량 짧았으며, 여기에 정교한 조향 성능까지 더해져 주행 성능 항목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편, 캐스퍼 일렉트릭은 아우토빌트가 함께 실시한 '출퇴근 및 가성비 중심 소비자'를 위한 최고의 소형 전기차' 평가에서도 ▲르노 'e-Tech' ▲피아트 '그란데 판다 일렉트릭' ▲시트로엥 'e-C3' ▲BYD '돌핀 서프' ▲리프모터 'T03' 등 5개 경쟁 모델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임채만 기자

실내파크골프장 이용안내 (전국80개) 유명구장

● 18홀 (1회/이용료8천원) ● 10회권/6만 ● 20회권/10만

1:1 교육	★왕초보 레슨반	기본자세, 공치기, 경기방법	1주완성/6만
	★구장 실전체험	80개 스크린구장/경기체험	초보,자격취득과정
	자격증 취득반	파크골프,지도사2급 파크골프,지도사1급 파크골프,심판/강사1급	▶ 2급/28만 ▶ 1급/35만 ▶ 심판/10만

■ 자격취득반/수시접수 ▶ 자격취득까지 추가비용 일체없음
(응시료+교재비+이론교육(영상)+실내실습(자격취득시까지 무료))
* 자격취득 즉시 스크린파크장 무료이용권 10장 제공 / 합격축하 기념

티샷·퍼팅샷·어프로치샷/
개인연습/이용자10분 무료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